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성공적으로 2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하여 2015년 2월 24일부터 2019년 2월 23일까지 4년 동안 2주기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으로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2011년도에 1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한 바 있고, 작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한 2주기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질 향상 그리고 환자 안전 시스템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채석래 병원장은 “그동안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한 교직원의 땀방울들이 인증획득이라는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원을 찾는 환우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은 1주기 때보다 조사항목이 408개에서 537개로 확대되었고, 항목 통과기준도 대폭 상향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환자안전 등을 평가하였다. 본원이 인증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환자안전분야뿐 만 아니라 의료서비스도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02 수술실 'Digital Mobile C-Arm System' 가동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최근 인기가 커지고 있는 최소 침습을 통한 혈관 내 시술 (Endovascular procedure)이 증가함에 따라 'Premium Digital Mobile C-Arm System'(OEC 9900Elite 12인치)을 2월 24일 추가로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이미지(영상) 증폭관인 'Image Intensifier'의 크기가 12인치로 현재 본원이 2대 보유하고 있는 9인치보다 커 대동맥 수술 또는 그 외 사지 혈관 수술 시행 시 모든 부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 한 번의 조영제 주사로 사지 혈관 촬영을 할 수 있어 Angio장비와 비슷한 효율과 영상구축이 가능하다.

본 장비는 미국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독보적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대학병원의 혈관외과와 흉부외과에서 최첨단 수술 장비로 검증된 바 있다. 앞으로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심장의 혈관중재술 등에서 사용하게 되며, 환우에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수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3 동국대학교병원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입증 '행정자치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서

동국대학교병원은 2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에서 본원의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태 조사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부서의 협조를 얻어 의료정보팀과 의무기록실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위원들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정보팀은 작년 12월 선정된 내부정보유출방지(Data Loss Prevention) 솔루션을 현재 원내에 구축 중이며, 앞으로도 병원의 주요정보와 기술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통제와 사후 감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04 2015년 상반기 친절 교직원 표창

동국대학교병원은 2015년 상반기 친절직원을 선발하여 3월 아침조회에서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재활의학과 남기연 교수, 성형외과 박수진 전공의, 기병동 천보혜, 분만장 임지연, 재활의학과 허남탁, 운영지원팀 강성범, Best 직원칭찬글상에 수술실 백유진 간호사가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최다칭찬상은 기준에 해당하는 교직원이 없어 선발되지 않았다. 동국대학교병원은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개원부터 반기별로 친절 교·직원을 선발하여 친절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주인공 23호

보험심사팀 팀장

추경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업무 자체를 마냥 즐겁게 처리하기란 쉽지 않다.

서양화와는 달리 여백 덕분에 그림이 더욱 아름답고 편안해 보이는 동양화처럼 우리 인생에는 여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상 한다.

나의 생활 중에는 수영, 달리기, 골프 등 다양한 운동이 훌륭한 여백의 역할을 해준다.

한 주의 일상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는 주말의 등산이나 여행 등이 매우 훌륭한 여백이 되며, 또 다른 한 주를 즐겁게 맞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추경란 팀장이다.

간혹 보면 운동 마니아로서 본인의 관리도 뛰어나고 등산, 요가 등을 통해 단련된 육체의 나이는 30대 초반처럼 보인다.

이러한 튼튼한 몸에서 건전한 마음과 긍정적인 힘이 발휘되는 듯하다.

여가와 주말을 본인의 여백으로 잘 활용하는 추경란 팀장이 참 부럽다.

침구과 교수 이승덕

Q&A

Q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휴대전화번호만 있을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나요?

A 휴대전화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 수 있고 정보주체와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접촉점으로 홍보·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에 해당됩니다.

동계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소감문 당선작

우수상 김혜원 학생

학교 밖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처음이라서 시작하기 전에 어떤 봉사를 하게 될지 기대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우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봉사활동의 뜻과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봉사활동 부서를 배정받을 때 '내 꿈이 간호사니까 간호사님들이 계시는 곳에 배정받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소아청소년 병동인 7층 병동에 배정이 되어 내심 기분이 좋았다. 동국대학교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환자분을 볼 수 있었는데 나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평소 생활 속에 투덜거리며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나를 다시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큰 감사함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환자분께서 수고한다며 사과 한 조각을 주셨는데 몸이 편찮으신데도 활짝 웃으시며 오히려 나에게 위로하듯이 말을 건네주셨던 일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마음이 뿌듯하고 남은 봉사활동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공부하기에도 바쁘데 봉사는 웬 봉사!'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봉사를 해보니 공부보다도 더 값진 좋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 비록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알 리 미

무료영화상영 상영작 : 기술자들 | 일시 : 3월 12일(목) 오후1시 | 장소 : 5층 대강당